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이윤정* · 유수정* · 김신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 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5.1%에 불과하던 노인 인구가 2000년에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인 인구는 2010년에는 10.7%, 2020년이 되면 15.1%가 될 것이다.¹⁾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의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인구의 증가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인 부양부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대가족의 형태에서 핵가족화로 변화하고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되면서 종래 가족에 의한 노인보호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1.3으로 추정²⁾되는데, 이는 15-64세 인구 5명 정도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인 수치로서,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인구를 감안한다면 실제 노인의 부양 부담은 앞서 제시한 수치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문제가 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들의 소외로 인한 문제,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의 문제, 노인들의 자살과 이혼문제, 노인기의 연장에 따른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등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들은 근대화로 인한 노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초래하여 '고령자 차별(Ageism)'을 낳고, 고령자 차별은 자원의 분배나 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노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³⁾. 그러나 고령자 차별은 인종 차별(racism)이나 성 차별(sexism)과 비교하여 세간에서의 인식이 현저히 낮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바로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다. 인구변화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후기 노인의 급속한 증가는 외상 노인과 치매 노인의 증가를 예상하게 한다. 이러한 외상 노인이나 치매 노인과 같은 장기 요양 노인의 증가로 인해 앞으로 노인 간호요구의 증가가 예측되며, 간호교육계에서 노인 간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노인의 건강문제는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질병 치료보다는 간호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특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1) 통계청. 2003. <http://www.nso.co.kr>, 2003년 9월 현재 자료

2) 통계청. 2003. 앞의 글

3) Dearney N, Miller M, Paul J, et al. Oncology healthcare professionals' attitudes toward elderly people. *Annals of Oncology*. 2000 ; 11 : 599-601

히 간호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 기회의 증가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인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노인 관련 분야는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⁴⁾ 그 원인은 보건 및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⁵⁾ 사회 전반에서 고령자 차별이 존재하는데다가 의료 현장에서 병들고 약한 노인을 간호하면서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⁶⁾ 장차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환자의 임상 간호가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이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태도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는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내용과 방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⁷⁾ 따라서 증가하는 간호대상 집단인 노인들에게 양질의 간호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태도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변화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젊은이 집단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70년대에는 주로 부정적인 것이었고 80년대와 90년대에는 긍정적인 것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긍정적 태도부터 부정적 태도까지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다.⁸⁾ 그러므로 현재 간호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는 노인 간호 교육과 실무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에게 효과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으며, 노인 간호의 중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노인 간호를 담당할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조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노인 간호 교육과 실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3. 노인간호학 수강 여부, 임상실습 여부, 조부모의 생존 여부,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여부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4) 이혜원. 한·일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01 ; 46 : 377-403

5) 임영신, 김진선, 김기순.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노년학. 2003 ; 22(1) : 31-46

6) Dearney N, et al. 2000. 앞의 글.

7) Courtney M, Ting S, Walsh A.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 J of Nurs Pract. 2000 ; 6(2) : 62-69

8) 김미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 연합회, 학술발표회. 한국노인학회,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2001 ; 155-165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관련 요인에 대해 조사 분석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1. 연구대상자와 자료수집

본 연구는 3개 지역에 위치한 4년제 간호학과를 편의표집하여 재학 중인 학생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에 응하기를 동의한 405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설문지 작성이 미비한 12명을 제외한 총 39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간호학 수강 여부, 임상실습 여부, 조부모 생존 여부,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 추가된 11문항의 반 구조화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된 7점 Likert type의 노화의미분법척도(Ag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ing)⁹⁾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 의하면 평가점수가 3.5에서 4.5 사이에 있을 때 중립적인 태도의 범위로 분류되고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12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태도별 관련 요인, 각 문항별 태도 점수 등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 등을 산출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간호학 수강 여부, 임상실습 여부, 조부모 생존 여부,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여부 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또한 대상자를 긍정적 태도군(0~<3.5점), 중립적 태도군(3.5~4.5점), 부정적 태도군(4.5~<7점)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 및 노인간호학 수강 여부, 임상실습 여부, 조부모의 생존 여부,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여부와 관계를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 및 노인간호학 수강 여부, 임상실습 여부, 조부모 생존 여부,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는 총 393명이었으며 이 중 여학생이 99.2%이었고,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0(\pm 2.36)세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경제상태는 중(83.2%), 하(14.5%), 상(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지는 도시(76.8%), 농어촌(23.2%)인 반면 주성장지는 도시(83.7%), 농어촌(16.3%)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출생순위는 첫째(38.9%), 둘째(38.2%), 셋째이상(22.9%)의 순이었으며 건강상태는 양호(64.4%), 보통(33.1%), 불량(2.5%)으로 나타났다. 전체대상자의 39.7%가 노인간호학을

9) Sanders GF, Montgomery JE, Pittman Jr JF, et a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Appl Gerontol, 1984 ; 59-70

수강하였으며, 39.2%가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상자의 75.6%가 조부모가 생존해 있었으며 55.2%가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특성

내용	구분	빈도(%)
성별	남	3(.8)
	여	390(99.2)
경제상태	상	9(2.3)
	중	327(83.2)
	하	57(14.5)
출생지	도시	302(76.8)
	농어촌	91(23.2)
주성장지	도시	329(83.7)
	농어촌	64(16.3)
출생순위	첫째	153(38.9)
	둘째	150(38.2)
	셋째이상	90(22.9)
건강상태	양호	253(64.4)
	보통	130(33.1)
	불량	10(2.5)
노인간호학 수강여부	있다	156(39.7)
	없다	239(60.8)
임상실습 여부	있다	154(39.2)
	없다	239(60.8)
조부모생존 여부	예	297(75.6)
	아니오	96(24.4)
조부모동거경험 여부	있다	217(55.2)
	없다	176(44.8)
계		393(100.0)

2.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1.50~6.50점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 4.15(±.78) 점으로 중립적인 태도 범위인 3.5~4.5점 사이에 속하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의 각 문항별 결과는 <표 2>와 같다. 문항별로 보면 “믿을 수 있다 - 믿을 수 없다”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2.95점)를 보였고, “진보적이다 - 보수적이다”에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5.44점)가 나타났다. 전체대상자들은 총 20개 문항 중 6개 문항에 대하여 3.5점 이하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노인을 믿을 수 있으며(2.95점), 너그럽고(3.09점), 착하고(3.12점), 친절하고(3.35점), 우호적이며(3.30점), 현명하다(3.48점)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5점 이상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8문항으로 대상자들은 노인을 비생산적이며(4.66점), 고지식하고(4.86점), 의존적이며(4.74점), 보수적이고(5.44점), 쇠약하며(5.26점), 소극적이고(4.65점), 매력이 없으며(4.74점), 불평·불만이 많다(4.66점)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문항별 태도점수

문항	평균(±SD)
믿을수 있다 - 믿을 수 없다*	2.95(±1.32)
너그럽다 - 이기적이다*	3.09(±1.47)
착하다 - 나쁘다*	3.12(±1.21)
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3.35(±1.31)
우호적이다 - 우호적이지 않다*	3.30(±1.31)
현명하다 - 어리석다*	3.48(±1.29)
생산적이다 - 비생산적이다**	4.66(±1.26)
융통성이 있다 - 고지식하다**	4.86(±1.39)
독립적이다 - 의존적이다**	4.74(±1.43)
진보적이다 - 보수적이다**	5.44(±1.07)
건강하다 - 쇠약하다**	5.16(±1.17)
적극적이다 - 소극적이다**	4.65(±1.22)
매력적이다 - 매력이 없다**	4.74(±1.25)
불평·불만이 없다 - 불평·불만이 많다**	4.66(±1.38)
즐겁다 - 우울하다	4.27(±1.14)
재미있다 - 지루하다	4.38(±1.26)
깨끗하다 - 지저분하다	4.42(±1.20)
참을성이 있다 - 참을성이 없다	3.64(±1.48)
낙천적이다 - 비판적이다	4.18(±1.23)
유식하다 - 무식하다	3.97(±1.12)
전체	4.15(±.78)

* 긍정적으로 평가된 문항, **부정적으로 평가된 문항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태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경제상태, 출생지, 주성장지, 출생순위, 건강상태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는 <표 3>과 같다. 즉, 경제상태, 출생지, 주성장지, 출생순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노인간 호학 수강 여부, 임상실습 여부 및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조부모 동거경험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30)가 있어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동거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태도 차이

내용	구분	평균(±SD)	t or F	p
경제상태	상	3.83(±.98)	1.611	.201
	중	4.14(±.79)		
	하	4.28(±.69)		
출생지	도시	4.19(±.75)	1.802	.072
	농어촌	4.02(±.89)		
주성장지	도시	4.18(±.76)	1.352	.180
	농어촌	4.02(±.89)		
출생순위	첫째	4.11(±.83)	1.958	.142
	둘째	4.11(±.77)		
	셋째이상	4.30(±.73)		
건강상태	양호	4.15(±.74)	.777	.461
	보통	4.14(±.84)		
	불량	4.46(±.98)		
노인간호학 수강 여부	있다	4.14(±.70)	-.228	.820
	없다	4.16(±.83)		
임상실습 여부	있다	4.16(±.71)	.202	.840
	없다	4.15(±.83)		
조부모생존 여부	예	4.14(±.80)	-.419	.676
	아니오	4.18(±.73)		
조부모 동거경험 여부	있다	4.07(±.81)	-2.174	.030
	없다	4.25(±.75)		

4. 노인에 대한 태도별 관련 요인

태도 점수를 보면 1.50~6.50점의 범위를 보여 매우 긍정적인 태도와 매우 부정적 태도를 모두 볼 수 있다. 이러한 양 극단의 태도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긍정적 태도군(0~<3.5점), 중립적 태도군(3.5~4.5점), 부정적 태도군(4.5<~7점)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 및 노인간호학 수강 여부, 임상실습 여부, 조부모의 생존 여부,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여부와의 관계를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 4). 이 기준에 의해 긍정적 태도군은 17.8%(70명), 중립적 태도군은 51.4%(202명), 부정적 태도군은 30.8%(121명)로 분류되었다. 각 집단은 경제상태, 주성장지, 출생순위, 건강상태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출생지의 경우 농촌(22.3%)에 비해 도시(77.7%)에서 부정적 태도군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45). 그리고 노인간호학 수강여부, 임상실습여부, 조부모생존 여부 및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각 태도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대상자 특성에 따른 각 태도군의 차이

특성	구분	긍정적 태도군 (N=70)	중립적 태도군 (N=202)	부정적 태도군 (N=121)	X ²	p
경제상태	상	4(5.7%)	4(2.0%)	1(0.8%)	6.948	.139
	중	60(85.7%)	166(82.2%)	101(83.2%)		
	하	6(8.6%)	32(15.8%)	19(15.7%)		
출생지	도시	46(65.7%)	162(80.2%)	94(77.7%)	6.198	.045
	농촌	24(34.3%)	40(19.8%)	27(22.3%)		
주성장지	도시	55(78.6%)	171(84.7%)	103(85.1%)	1.665	.435
	농촌	15(21.4%)	31(15.3%)	18(14.9%)		
출생순위	첫째	36(51.4%)	72(35.6%)	45(37.2%)	8.459	.076
	둘째	26(37.1%)	79(39.1%)	45(37.2%)		
	셋째이상	8(11.4%)	51(25.2%)	31(25.6%)		
건강상태	양호	48(68.6%)	127(62.9%)	78(64.5%)	8.949	.062
	보통	19(27.1%)	74(36.6%)	37(30.5%)		
	불량	3(4.3%)	1(0.5%)	6(5.0%)		
노인간호학 수강 여부	있다	29(41.4%)	78(38.6%)	49(40.5%)	.219	.896
	없다	41(58.6%)	124(61.4%)	72(59.5%)		
임상실습 여부	있다	26(37.1%)	82(40.6%)	46(38.0%)	.360	.835
	없다	44(62.9%)	120(59.4%)	75(62.0%)		
조부모 생존 여부	예	53(75.7%)	150(74.3%)	94(77.7%)	.483	.786
	아니오	17(24.3%)	52(25.7%)	27(22.3%)		
조부모 동거경험 여부	있다	47(67.1%)	109(54.0%)	61(50.4%)	.528	.071
	없다	23(32.9%)	93(46.0%)	60(49.6%)		

IV. 논의

1.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대학생,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간호대학생, 간호사 및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수행되었는데 결과가 다양하여 일관된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는 4.15±.78로 중립적인 태도 범위인 3.5~4.5점 사이 내에서 약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중립적 성향은 외국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¹⁰⁾, 그리고 부산과 광주지역의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태도¹¹⁾와 유사하다. 반면에 긍정적 태도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는데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 예이다.¹²⁾ 부정적 태도를 보고한 연구로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매우 고정적이며, 그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노인간호 영역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다고 보고한 국내 연구가 있고¹³⁾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이며 노인 대상자에 대한 선호도 역시 낮다고 보고한 연구¹⁴⁾들이 있다. 이 외에도 서울 지역 대

10) Myers H, Nikoletti S, Hill A. Nurses' use of restraints and their attitudes toward restraint use and the elderly in an acute care setting. *Nursing and Health Sciences*. 2001 ; 3 : 29-34

11) 김수영, 양경미, 오현이, 김진선.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한국노년학*. 2002 ; 22(3) : 21-36

12) 고정자, 이은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노인에 따른 태도와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연구 논문집*. 2000 ; 8(1) : 67-78

13) 김은일. 노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 조사 연구. *간호학회지*. 1982 ; 12(1) : 1-12

14) 임영신 외. 2002. 앞의 글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는¹⁵⁾ 보고도 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젊은 층일수록 심하며 그 중에서도 간호사에게서 훨씬 부정적이라는 국외의 보고¹⁶⁾ 및 간호에서 노인 영역은 비인기 영역이 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¹⁷⁾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가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즉 지방 대학생들이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¹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차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간호학생의 경우도 부정적 태도를 보고한 연구¹⁹⁾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수행되었고 중간, 혹은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의 대상자들은 지방 소재 대학의 간호대학생이므로 이러한 태도 차이가 선행 연구가 수행된 시점인 1982년으로부터 22년이 지난 시간에 따른 변화인지, 아니면 지역 차로 인해 초래된 차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는 여자 의사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는 보고²⁰⁾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성별에 따른 이러한 태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중립적인 가운데 1.50~6.50점의 범위를 보여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부터 매우 부정적 태도까지를 모두 볼 수 있다. 또한 총 20개 문항 중 6개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인은 믿을 수 있으며, 너그럽고, 착하고,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문항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인은 비생산적이며, 고지식하고, 의존적이며, 보수적이고, 쇠약하며, 소극적이고, 매력 없으며, 불평·불만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14개 항목에서 보여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는 실무에서 노인대상자와의 관계에서 편견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 대상자들이 노인에 대해 보고한 내용 중에는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노인의 특성이 반영된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은 일반적으로 젊은이에 비해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경우 그러한 특성을 지니게 되는 역동에 대한 이해와 노인들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노인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지하는 것보다는, 노화로 인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간호를 수행할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

선행연구²¹⁾에서 지방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는 보고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출생지 및 주 성장 지역을 도시와 농어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적, 실제적 접촉 경험과 노인에 대한 태도와

15) 서병숙, 김수현.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99 ; 19(2) : 97-111

16) Lookinland S & Anson K. Perpetuation of ageist attitudes among present and future healthcare personnel. J Advanced Nurs. 1995 ; 22 : 47-56

17) Giardina-Roche C & Black MEA. Attitudes of diploma students towards adult clients. J Nurs Educat. 1990 ; 29 : 208-214

18) 이인수. 농촌지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도 연구. 한국노년학. 2000 ; 20(2) : 125-135

19) 김은일. 1982. 앞의 글

20) Beland F & Maheux B. Medical care for the elderly. Attitudes of medical caregivers. J Ageing Health. 1990 ; 2 : 194-214

21) 이인수. 2000. 앞의 글

의 관계를 보면 노인간호학 수강 여부, 임상 실습 여부, 조부모 생존 여부 역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관련 교육이나 노인과의 상호작용 경험과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²²⁾와 동일하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수업²³⁾과 지식²⁴⁾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어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성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유일하게 유의한 태도 차이가 나타난 특성은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여부이었다. 즉,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다르거나 전혀 상반된 결과이다. 즉,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²⁵⁾²⁶⁾나 관련은 있되 동거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더 부정적이라는 연구보고²⁷⁾와 다르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는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더 긍정적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과의 동거 여부 보다는 동거 노인과의 관계의 질에 의한 차이로 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동거 노인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²⁸⁾와 노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경험한 경우²⁹⁾에 한하여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과의 경험 자체보다는 관계의 성격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지을 수 있다.

3. 노인에 대한 태도별 관련 요인

본 연구 대상자들의 태도 점수는 1.50~6.50점의 범위를 보여 이러한 양 극단의 태도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긍정적 태도군(0~<3.5점), 중립적 태도군(3.5~4.5점), 부정적 태도군(4.5<~7점)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 및 노인간호학 수강 여부, 임상실습 여부, 조부모의 생존 여부,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군은 경제상태, 주성장지, 출생순위, 건강상태 및 노인간호학 수강여부, 임상실습 여부, 조부모 생존여부, 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생지가 도시(77.7%)인 경우 농촌(22.3%)에 비해 부정적 태도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역에 따른 노인의 태도에 차이가 있다³⁰⁾³¹⁾는 것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주성장지가 도시(85.1%)인 경우 농촌(14.9%)인 경우와 비교하여 부정적 태도군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다고(68.6%)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 태도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는 유의하지 않아(표 3) 현 시점에서 지역에 따른 태도 차이에 대한 결론은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선행 연

22) 김은일. 1982. 앞의 글

23) 서병숙, 김수현. 1999. 앞의 글

24) 김수영 외. 2002. 앞의 글

25) 김은일. 1982. 앞의 글

26) 서병숙, 김수현. 1999. 앞의 글

27) 임영신 외. 2002. 앞의 글

28) 임영신 외. 2002. 앞의 글

29) 한정란.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00 ; 20(3) : 115-127

30) 고정자, 이은민. 2000. 앞의 글

31) 이인수. 2000. 앞의 글

구들이나 본 연구 결과의 내용 중 일부에서 지역에 따른 태도 차이가 드러난 만큼 후속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다면 획일화된 교육 내용이 아닌 피교육 대상자들의 특성과 태도를 고려한 교육내용이 개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최근 들어 노인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노인의 건강 문제가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관심거리로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앞으로의 간호대상자는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뿐더러 의료현장에서는 아프고 약한 노인을 간호하면서 더욱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노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간호 대상인 노인들에게 양질의 간호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설문지와 노화의미분법척도를 이용하여 3개 지역의 간호대학생 405명을 대상으로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1.50~6.50점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 4.15(±.78)점으로 중립적인 태도 범위인 3.5~4.5점 사이에 속하였다.
2.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노인을 믿을 수 있으며(2.95), 너그럽고(3.09), 착하고(3.12), 친절하고(3.35), 우호적이며(3.30), 현명하다(3.48) 였다.
3.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노인을 비생산적이며(4.66), 고지식하고(4.86), 의존적이며(4.74), 보수적이고(5.44), 쇠약하며(5.26), 소극적이고(4.65), 매력이 없으며(4.74), 불평·불만이 많다(4.66)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경제상태, 출생지, 주성장지, 출생순위, 건강상태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노인간호학 수강 여부, 임상실습 여부 및 조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조부모 동거경험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30)가 있어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동거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연구대상자는 긍정적 태도군은 17.8%(70명), 중립적 태도군은 51.4%(202명), 부정적 태도군은 30.8%(121명)로 분류되었다.
7. 각 집단은 출생지에 있어 도시(77.7%)의 경우 농촌(22.3%)에 비해 부정적 태도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45).

색인어 : 노인, 태도, 간호대학생

=ABSTRACT=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elderly

LEE Yun-Jung · YOO Soo-Jung · KIM Shin-Mi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identify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related factors. **Method** : 405 nursing students of three university from three different region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data of 393 subjects were analyzed. To measur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g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ing(ASDS) developed by Sanders et al was utilize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SPSS version 10.0 and descriptive analysis, ANOVA, and χ^2 were performed as appropriate. **Results**: ASDS score were in range of between 1.50 ~ 6.50 and mean score was $4.15 \pm .78$, which is neutral. ASDS score were not different by an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cept the experience of living with her or his grandparents. Subjects with the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ir grandparents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attitude ($p=.030$). Attitude groups were categorized by ASDS score into three groups; positive, neutral, negative. Each group wa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by general characteristics except birth place. Subjects who were born in rural area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p=.045$) compare to the ones from urban area. **Conclusion** :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as neutral. And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elderly seemed to be a critical factor for the attitude. Repeated studies to confirm the attitude and any related factors to affect those attitudes such as regional groups and/or quality of interaction with the elderly.

Key words : nursing student, the elderly, attitude